

월간 충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76 8월호

성도의 옷

〈성경 / 고후 5 : 3〉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시민입니다. 따라서 천국시민 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겠습니까?

□ 세상의 옷

이것을 말하기 전에 사람이 옷을 입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사람이 옷을 입는 목적은 첫째 사람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적당한 사람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옷을 입습니다. 옷입는 모양을 보아서 그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옷도 적당하고 적당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피상망측한 옷이나 자기 분수에 지나친 사치한 옷을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방탕과 향락에 빠진 듯한 옷과 몸치장을 한 사람을 볼 때, 그 자신의 불행도 가슴이 뜨러니와 그의 가정과 국가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사회의 미풍양속을 문란하게 하며, 사상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기가 막히도록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몸을 보호하고 내 신분과 내 처지에 합당한 옷을 입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 보기에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성도의 신령한 옷

신령한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으며 악마와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옷을 입으면 우리의 흉악망측한 죄가 모두 가리워져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어엿이 설 수 있고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의 이 신령한 옷은 십자가 정병의 갑옷으로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려면, 꼭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 신령한 옷을 입으려면

신령한 옷은 묵은 옷,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벗어야 할 더럽고 묵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외식하는 이중인격의 옷입니다. 이 옷은 언뜻 겉으로만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불꽃 같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오히려 더욱 가증하고 환란 때에 멸망으로 이끄는 옷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겉으로 양만 꾸미는 외식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김 창 인 목사(당회장)

다음으로 벗어야 할 것은 교만하고 거만한 굽높은 나막신입니다. 이것은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망신하게 하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입니다. 성도는 이와같은 것들을 완전히 벗어 버리고 입어야 할 신령한 옷을 지금 당장 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옷은 무엇입니까?

□ 예수님이 곧 신령한 옷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옷을 보고 우리를 성도인 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이 옷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추어 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마귀가 이 옷을 보면 감히 덤벼들지 못합니다. 이 옷은 의로운 행실로 염색된 옷입니다. 죄우로 치우침이 없이 정정당당한 행실로 욕심의 때가 묻지 않고 불의한 죄악에 오염되지 않고 순결함을 굳게 지켜 더욱 돋보이는 의로운 옷입니다.

이 옷은 또 부드러운 사랑으로 짜여진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만이 입는 정결한 세마포의 웨딩 드레스로서 신부의 정절을 지키는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 옷은 또 변화 있는 옷으로서 마귀와 싸울 때는 더할 수 없이 튼튼하고 완전한 갑옷이 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화평의 예비한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겹이 되어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승리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물더라도 우리는 오직 한가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임을 알도록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며 악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옷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식의 옷, 교만의 나막신을 과감히 벗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냄으로써 신자로서 정정당당하게 살며,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천국에서 하늘 영광의 옷을 입고 영원히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월간 증현

8월의 행사

- 1/제교회 · 남전도회임원회 · 권사회임원회 · 동산관리위원회
- 2/산업전도회월례회 및 세미나
- 2-4/초등부 어린이수양회
- 2-5/유년부 여름성경학교
- 8/남전도회월례회 · 권사회월례회 · 월간증현 편집위원회 · 여전도회임원회
- 9-13/전도위원회 · 제 5회 농어촌전도대 파송
- 10-12/장로수양회
- 15/여전도회월례회 · 전도위원회 · 재정위원회
- 16/교육위원회
- 20/구역권찰회
- 23-24/노년부 하기수양회
- 25-27/영아부 어린이성경학교
- 29/주교각부 월례회 · 해외복음선교회월례회

8월호 차례

- 〈설교〉 성도의 옷 / 김창인 목사 2
- 특집
- 헌금의 의의와 바른 헌금생활 / 정관일 목사 4
- 〈기획연재 ③〉 농어촌전도 / 오태용 12
- 〈탐방〉 마지막으로 찾은 교회 8
- 〈인터뷰〉 증현의 자랑
김애리 피아니스트 / 이형수 7
- 〈신학해설〉 신복음주의란 무엇인가?
/ 김차생 집사 13
- 〈구역장노우트 ⑦〉 교회등록절차와
카아드관리요령 / 백성룡 목사 15
- 〈캠페인〉 뜨겁게 봉사하자 10
- 〈필림〉 돈과 인간의 가치 / 정은표 집사 11
- 〈환송가 해설 ⑦〉 내 주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11
- 〈책소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 조선근 집사 10
- 〈9월 구역공과〉 주기도문 14
- 〈구역소식〉 15
- 〈교회뉴스〉 16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19
- 〈현집무기 · 표지설명〉 18

◇ 방송전도 ◇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 : 아세아
방송(1570).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권 두 언

> > >

오직 선한 청지기로

—물질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

물질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서 찾아 볼 수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여기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은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한다. 루터가 바로 지적한 대로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어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할 것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딤후 6:10)고 한 것이다. 계속하여 바울은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딤후 6:18)고 하였다. 그 이유를 바울은 다음 귀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딤후 6:19).

그러면 물질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위에서 우리는 물질주의의 위험성을 발견하였거니와 또 다른 위험은 이원론적인 물질관이다. 즉 물질을 더러운 것, 격약된 것으로 보는 생각인데, 본래 이것은 페르샤에서 발생한 이방사상으로서 그것이 초대교회 때 벌써 교회 내에 침투하였으며 한국에는 유리탄 사상과 함께 부분적으로 들어와 많은 열심있는 보수주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크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바른 물질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뱀전 4:10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이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므로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청지기처럼 물질을 사용하고 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지기정신은 물질을 벌기 위한 방법과 사용법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생의 목적을 제시해 준다. 칼빈주의란 다른 아님 이 청지기정신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바로 그것이다.

〈주간〉

헌금의 의의와 바른 헌금생활

정 관 일 목사

〈청년부 지도·월간총원 편집위원〉

-◇ 지난 호의 성수주일에 이어 이번 호에는 「헌금문제」를 다룬다. 쉽게 시험받을 수 있고, ◇.....
◇ 또한 남들에게도 어려운 시험을 줄 수 있는 것이 헌금인가 한다. 성도의 생활중 가장 중 ◇.....
◇ 요한 것이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행이 아닌가 생각한다. ◇.....
◇ 본문 중에 나오는 헌금에 관한 이해 중에 「헌금은 내는 액수로 측정하느니보다 남은 액수 ◇.....
◇ 가 얼마인가로 측정될 것이다」 「십일조는 우리의 1/10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 ◇.....
◇ 나님의 9/10를 쓰는 것이다」라는 내용은 헌금실행에 있어 명쾌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
◇ 올바른 헌금 이해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할 것을 바 ◇.....
◇ 리며 이 글을 소개한다. <편집자> ◇.....

그리스도인으로서 헌금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헌금에 대한 성경적 원리의 물이해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아직도 율법주의적 헌금론이나 헌금 부정론을 말하므로 신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참 신자라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대로 깨닫고 좇아야 할 것이다.

1. 헌금의 의의

한 마디로 말해서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함의 표현이요 신앙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마 6:21).

(1) 구약시대의 헌금

구약시대의 헌금은 십일조에 근거를 둘 수밖에 없다. 십일조는 아브라함 때(창 14:20)부터 시작하여 말라기(말 3:8-10)에 이르기까지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 제도의 내용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십일조의 종류에도 다양하다. 십일조하면 대개 농작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나(말 3:10), 3년마다 드리는 십일조(신 14:28; 26:12), 가축의 십일조도 있다. 그런데 십일조의 중심적 의미는, 첫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둘째로 주어진 물질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해 사용케 하시려는 데 뜻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십일조는 헌금신앙을 요약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구약의 헌금신앙이 십일조만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십일조 외에도 헌물(주일헌금?)이 따로 있었고(말 3:8), 그 밖에 각종 제사에 드리는 제물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었다(히 10:8). 이런 정도로 보아서도 십일조만이 구약 헌금신앙을 전부 대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요는 신약 교회에서도 십일조만을 했다고 헌금신앙이 다 된 줄 알고 마음 편히 있는 성도들을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여기 있다. 온전한 십일조(말 3:10)만이라도 하는가 하는 것이다.

소위 십일조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참다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성도는 수입의 1/10을 제쳐 놓기는 하는데 그것으로 모든 헌금의 원천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십일조 중에서 주일헌금 각종 작정헌금(선교·전축·동산·지회 회비 등) 구제금(교역자 심방시 교통비) 개척교회 보조금, 절기감사헌금, 특별감사헌금, 찬조금 등등의 여러모로 사용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하나님의 것으로 2중 내지는 10중 이상으로 자기 생색을 내는 무서운 범과를 빨리 시정해야 한다. 우리는 십일조 사상에 얽매일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의 십일조는 드려야 함은 물론, 그 밖의 기타의 모든 헌금은 십일조와 별도로 실행함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2) 신약시대의 헌금

신약시대의 헌금신앙은 자발적인 헌금을 하는 데에 있다. 즉 마음으로 기뻐서 바치는 데 있다. 강제하지 않는 데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 사람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도 아니다. 헌금은, 마땅히 이들이 아버지에게, 종이 상전에게, 청지기가 주인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에 넘쳐서 바쳐야 할 주님의 명령인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신약의 헌금의 의의는 헌금의 의무를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부터 바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2. 바른 헌금생활

교회가 물질(돈)이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은 하나님 이상할 것이 없다. 때문에 연보를 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교회에서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고 질문도 한다. 한 마디로 「교회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마음은 불쾌해질지 모른다. 그러나 교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재정적 필요를 인정하셨으며(마 6:19-21), 이 부담을 성도들의 협동으로 지게 하셨다(마 19:22; 눅 12:21).

그러므로 「이상적인 교회」란 돈이 안드는 교회가 아니라 본래의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교회이다.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단 10월의 인간의 돈도 사용치 않고 복음화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의 자원은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이다(시편 50:10,12). 이렇게 부자이신 하나님께서도 불구하고 땅위에서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우리의 돈이 쓰여지도록 허용하신 것은 놀라운 자비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물질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

(1) 소유의 바른 인식부터

모세는 세상이 다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했다(출 9:29), 토지도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 내 것이니라(레 25:23)고 하였다. 역대상 29:14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아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였고, 학개 2:7-8은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다. 또한 만물과 인간도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셨다(시 24:1; 사 43:1; 시 103:3). 성경은 이처럼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온 땅과 만물과 모든 육체까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념을 전제로 하고 청지기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2) 우리의 소유물은 있는가?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도 구약의 1/10조 생활(창 14:20; 28:22; 레 27:30~33; 민 18:21~29; 신 12:5~7; 14:22~29; 26:12~; 삼상 8:10~15; 느 10:32~37; 암 4:4~)에 관한 교훈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9/10는 정말 우리의 소유란 말인가? 과연 이것은 바른 견해인가?

로마서 14:8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나, 고린도전서 6:19, 20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하였다. 사람의 모든 소유물은 사람의 몸(생명)에 붙어 있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없을 때에는 돈도 물질도 부동산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과 재산을 붙들고 있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이상 우리는 주님의 부동산이지 우리의 부동산은 하나도 없다. 때문에 1/10만 하나님의 것이고 9/10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적인 헌금론 시대가 지난 오늘에 와서도 1/10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10/10이 하나님 것이라는 교훈을 해치는 큰 위험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다. 1/10조의 강조는 나의 시간·돈·생명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를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지나친 강조는 금물이다. 신약적 사상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 것이 너무 많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 것이라고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소유권의 시효는 완료된 것이다. 비단 돈만이 아니라, 시간도



〈헌금은 많은 것보다 정성이, 그리고 바치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를 물어야 한다는 정관일 목사〉

생명도 전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을 청지기로서 맡았을 뿐이다.

(3) 우리의 헌금을 성경은 어떻게 측정하고 있나?

① 무엇을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성이 문제다. 사무엘하 24:21~25에 보면 다윗이 제사를 드릴 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제사를 위해서 타작마당·소·나무·제사도구 등 모든 것을 마음대로 취하라고 했다. 그 때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은 50세겔로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이다. 이것은 정성 없는 제물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② 헌금은 바쳐진 양(量)에 있지 않고 바친 후에 얼마가 남아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연보케를 대하여 앉으신 일이 있다(막 12:41~44). 그 때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연보하는 것을 보셨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는 데도 가난한 과부가 두 렵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 앞에서 칭찬을 하셨다. 일반적인 관찰로는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렇지만 이때에 주님께서 보신 것은 연보케에 들어간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고 바치고 남은 것을 보셨다.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바치고 남은 것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다. 헌금의 정신이 여기에 있다. 헌금은 많은 것보다는 정성이, 그리고 바치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측정의 대상이 된다. 성도가 자기 가정과 개인생활에는 풍부하게 쓰면서도 하나님의 집 살림살이에는 무관심하거나 인색하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이다.

참 성도는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합법적이어야 한다. 최소한의 의무인 1/10조를 드린 후에 사용해야 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팁(tip)을 기다리는 웨이터(waiter)로서 하나님을 취급하는 망령된 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손님이 웨이터에게 돈이 있으면 팁을 많이 주기도 하고 없으면 주지 않아도 되는 식의 헌금이나 십일조는 성경에서 전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금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4) 물질의 관대한 처분은 풍성한 영적 생활에서 오는 것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축복의 처음 결과들의 하나가 소유물에 관한 성도들의 태도가 변한 것이다. 사도행전 2:44, 45에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도행전 4:32~35에는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는 이가 없더라...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더라” 하였다.

사도시대의 영적 축복은 재물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게 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적 축복은 물질에 관한 태도를 통해 하는 데에 이르렀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할 때 마케도냐교회에서는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겠다고 하였다(고후 8:1~5). 이 일은 오로지 마케도냐교회에 주신 은혜로만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8:1에 덧붙여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께 보다 많이 드리고자 하는 열심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 생활의 빈곤상태를 진단해 주는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5) 풍성한 헌금이 물질적인 번영을 보장해 주는가?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바울의 경우가 그렇다. 그렇다고 바울이 돈이 없어 일 못했다고 한곳은 없다. 바울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체가 없었다(고전 4:11, 12)고 하였으나 사실 바울의 전도 사역에 연보가 모자라지 아니했다. 연보를 하는데 그 목적이 복이나 받자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연보를 안하면 저주를 받거나 벌을 받을까 보아서 하거나 연보를 잘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적인 헌금론은 불식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관대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면에서 관대하게 주실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오는 선물이지만 구원 이외의 축복은 대개가 행한 대로 믿음 안에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색하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풍성히 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고 하였다(고후 9:6, 7).

고린도후서 9:8, 9에 보면, “그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바치는 자는 풍성하도록 그들의 자원을 더욱 넉넉하게 하여 주신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 마음으로 즐거워 바치는 자는 결코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즐거는 자가 모은다」는 말씀은 자연법에는 위배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다(시 112:9). 고린도후서 9:10~11에서 바울은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마음으로 즐거워 내는 자는 종자를 뿌린 자와 같이 더욱 많이 바치도록 항상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했다.

칼빈(J. Calvin)은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자는 토지에 물을 자기 편으로 흐르도록 하는 것과 같이 풍성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헌금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결코 축복받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와 교인 생활이 가난한 것은 헌금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한다.

(6)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영적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가?

많은 것으로 드릴 때 영적 축복이 커질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왜냐 하면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과 같이 나누었다면 주님이 가지신 것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지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금전적인 헌신과 영적 성장 사이에는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빌립보교회가 그러할 기쁨과 은혜가 넘쳤던 것은 주님의 사역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베푸는 판단함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교훈을 단지 마음에만 들 것이 아니라 실습의 현장으로 옮겨야 한다. 영적 성장을 원하는 자마다 들뜬 주님께 드리고 남에게 주는 일에도 아낌 없는 청지기 실습을 잘 해야 한다. 바울이 후한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후 9:13)고 한 것을 보아서 풍성한 연보는 틀림없이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함을 알 수 있다.

(7) 나는 어떤 방법으로 헌금해야 할까?

20세기 현대 교회는 헌금을 수거(收擧)하는 일에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빈부의 격차라든가 바닥에 깔린 불황문제로 교회 헌금 강조는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재정적인 책임에 관하여 질문할 때 사정을 봐주지 않고 있다. 우리는 헌금하는데 적어도 다음 세가지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①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무엇을 바칠 때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신다(고후 9:7). 만일 돈에 대한 아끼는 마음, 부득이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도 부득이한 마음이 나타날 것이다.

② 헌금과 구제는 조직적이고 방법적이어야 한다. 바울은 매주 첫 날(주일)에 하라고 하였다(고전 16:2). 되는데로 하여서는 안된다. 생각나면 하고 없으면 안하는 것을 성경은 용납치 않고 있다.

③ 우리의 헌금은 허세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드러야지 내 것을 드러면 안된다는 말이다. 대개 헌금할 때 허세를 부리거나 헌금을 하고 나서 주장이나 권세를 부리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드러내는 데서 생긴 문제들이다.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르게 해야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적다고 수치스럽게 생각지 말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 많은 액수를 내게 될 때에는 광고나 자랑하면서 낼 사람이 되기 쉽다. 헌금을 자랑하기 위해서나 칭찬을 위해서 해도 안될 것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용히 스스로 물어보라. 나는 내 소유물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청지기 직분속에서 주님께 대한 사랑이 간절하게 나타나 있는가?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은 적들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돈을 통하여 세제 복음화를 위해 최대의 영향을 끼치도록 각자 예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 얘기가 나올 때에도 당황하거나 불평을 말아야 한다.

바울은 오히려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자주 언급을 했다. 그 이유는 거저 받은 것이므로 거저 드릴 때에 더 큰 축복이 임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헌금을 강조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요, 둘째는 성도들이 부자되게 하는 비결인고로 서슴지 않고 가르쳤다(고후 8:9).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려 하면 그 이상 영육간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남에게 더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육신적으로도 부자로 잘 살고 영적으로도 은혜가 넘치려면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면에서 청지기 사명을 잘 이행하여야 한다. (*).

세계로의 발돋움 속에

「충현」에서 자란 피아니스트 김애리
양이 지난 7월, 국립극장에서 성향
리에 귀국피아노독주회를 가졌다.



〈다음 주일(8·15) 저녁에배 때
복수를 약속한 김애리 피아니스트〉

- … 우리교회에서 유·초·중등부를 거쳐 고등부에 다니다 피아노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 ○…
- … 던 김애리 양이 귀국, 지난 7월 5일 저녁 국립극장에서 피아노독주회 (조선일보 후원)를 가졌 ○…
- … 다. 「세계로의 발돋움」으로 국가와 교회를 빛내 줄 김양의 성장을 보고, 관심 속에서 아낌없 ○…
- … 는 성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천재적 피아니스트인 김양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
- … 이것은 주일학교 때, 주옥 김양을 지켜 보아 온 조선근 집사(월간충현 편집위원·유치부 부 ○…
- … 감)와의 대화를, 본 월간충현 이형수 간사가 정리·기록한 것이다. (편집자) ○…

“불과 5년인데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있어
요. 3부 예배까지 드리고요”하며, 본교회에 돌아온 소
감을 말하는 김애리 양(22)은 우리교회 여성성가대원
장영옥 집사(아버지는 김만국씨로, 삼공계약 경영)의
2남 2녀 중 맏딸이다.

여섯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다 보니 음악이 좋아졌다
는 김양은 이미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나라를 두번
이나 방문하여 연주회를 가진바 있는 폴란드계 미국태
생인 루스 슬렌친스카 여사에게 인정받고, 따라서 김
양의 성장을 주시해 오던 그분께 의해 여고 2학년 때
정식으로 초청받았다. 루스 여사는 김양에게는 스승이
가르쳐서 될 수 없는 무엇(마음·재질)이 있다고 칭찬
하고 김양의 대성(大成)을 향한 계속적인 뒷받침을 위
해 자기가 맡고프다면서 양녀(養女)로 줄 것을 제의해
왔다고 어머니 장집사가 당시를 회고한다.

도미하기 전인 1970년 10월, 시립교향악단 제 163 회
정기연주회시 피아노협연을 하여 관심있는 음악인들의
많은 주목을 끌었던 김양은 71년 7월 경기도고 2학년
제학 중 도미, 1년 뒤인 1972년 6월에 세인트루이스교
향악단 청소년독주회 오디션에서 1등을 탄 후, 전미국
음악장학재단 콘페디션 2등(73년), 마호아우어 여사
마스터클래스에서 연주(73년), 뉴우욕 루빈스타인 마
스터클래스 연주(74년)를 거쳐 지난 4월의 세인트루이스
악티스트프레제نت에디션협회 오디션에서 1등하는 등
음악도로서의 단단하고 빛나는 역경을 걸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위에는 반드시 따르는 고통이
있다. 김양은 도미 이후 주일 외에는 계속 음악공부와
피아노에 매여달리는 끈질긴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배
서 김양은 1972년 6월 사던일리노이스대학교에 입학
하여 1975년 6월에 영예의 수석으로 졸업하고, 1년
뒤인 1976년 즉 지난번에 동대학원에서 석사코스를
졸업하는 천재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번 연주한 곡은 종제로 다시 반복하지 않는 학구
파(學究派)김양은 이번 연주회에서 고전낭만파의 음악
들로 쇼팽의 발라드 제 4번 F단조, 바하의 토카타 D
장조, 바이버의 소나타(이것은 한국 초연), 베토벤

의 소나타 제 22번, 슈만의 교향적연습곡 등이다.

김양의 연주를 들은 어느 평론가는 “슈만은 아주 훌륭했다.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했다”고 감탄하여 말하
기도 했다. 또한 성두영 교수(이대음대)는 “...그는 충
분한 연습량이 연주자의 본래의 사명처럼, 피아노
없이 생존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는 그런 피아니스트임을 강렬하게 느끼게 했다. ... 그
의 담백하고 순수한 음악관은 그의 낭만적인 기질과
부합만을 보여주었다. 시성(詩性)이 절제되고 소리 하
나, 화음감 하나에 더욱 섬세한 터치를 더 키우고 더
추구한다면 국제적 피아니스트로 성장할 수 있으리
라고 믿게 하는 이 날의 리사이틀이었다”(조선일보,
1976.7.8)면서 김양의 앞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어릴 때 한봉희·정진우 교수에게 사사를 했다. 정
교수(서울대음대)는 김양을 보고 “조금도 변하지 않
았구나!”하며 펴 만족해 하시더란다. 또한 김양을 아
는 모든 사람들도 「예전과 똑같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펴 대견스러워 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흔히
어릴 때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오
만함과 불손한 등에 대한 안도의 표현인지도 모른다.

예술을 통한 선교의 가능성, 음악의 선교 미디어로서
의 효과 등을 꿈꾸며, 이제 8월말에 떠나면 9월학가
부터 음악의 명문 쾰리야드대학원에서 공부하게 되며,
김양은 동교에서 새로 사사받게 되는 배틀리웨스터 교
수도 존경하는 분 중의 한분이라 한다. 좋아하는 피아
니스트는 「아라유」와 「리히터」.

앞으로의 계획과 희망을 묻는 말에 “쾰리야드에서
공부가 끝나면 유럽으로 가서 계속 연구하고 싶어요.
지금의 경우로 보아서는 연주가쪽으로 기울어지기 쉽
겠지만 가능하면 틈틈이 가르치면서 연주하는 두가지
일도 해보고 싶어요.”

어린시절, 언제나 초등부 헌신예배의 반주를 맡았던
그가 이제는 물라보도록 모습도, 피아노 연주솜씨도
크게 자랐지만 예나 다름없는 「소박한 신앙인」이라는
데 더욱 친근감을 느껴며 세계 경성의 그날을 위해 마
음껏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마지막으로 찾은 교회

— 그리스도와 새 삶을 찾은 조성행 씨 —

- ◇..... 집에서든 모두가 포기했다. 혹시 낫는다 하더라도 병신이 될 것이고, 그렇.....◇
- ◇.....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모두가 절망이었다. 74년도 저물어 가는 12월, 마지.....◇
- ◇.....막으로 정릉의 어느 한의사를 찾아가었다. 「이 병은 이제 못 고치는 병이요 총.....◇
- ◇.....무릎에 있는 충헌교회를 찾아가시오」.....◇
- ◇.....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오늘이나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부르고 계.....◇
- ◇.....신다는 엄연한 진리를 우리는 다시 우리 주위에서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새.....◇
- ◇.....로 정해진 흥해지역의 선교사 파송의 동기가 그로 인해 시작되었다면 —, 실.....◇
- ◇.....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도 이 앞(천지호텔과 천지카바레)을 지나가면 웨이터들이 왜 요즈음은 놀러 오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하.....” 하면서 조성행(趙聖行·39)씨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찬 얼굴에 웃음을 띄며 이야기한다.

울지로 5가 버스정류장에서 우측으로, 천지호텔 앞 건너편 골목을 100m 들어간 곳에 위치한 그의 집을 함께 들어가면서 그는 이제는 오직 예수만을 위한 삶으로 가득 차 있는 듯이 보였다.

바로 2년 전만 해도 그는 호텔·카바레 등 환락가에서 돈 잘쓰는 멋쟁이로 통했던 것이다. 적극적이고 정열적인 성격을 가진 그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고 있는 곳에서 항상 리더가 되곤 했다.

고향(경기도 이천군)에서 16세에 서울로 올라온 그는 남대문·평화·동대문 시장...에서 여러원점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자립하여 가게를 열었고, 그 장사는 날로 번창, 전국적인 조직 속으로까지 번창하였다.

이 때부터 그는 「돈이면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었다. 그와 같은 노예적인 노력을 한 보람이 있어 돈벌이에 재미를 보게 되었다. 허나 이와같은 돈벌이에 비례하면서 그는 유흥과 쾌락을 가까이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방탕한 생활은 극심하여졌다. 동대문·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유흥점·술집 등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한 사고로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다. 따라서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정신적인 괴로·고통이 겹쳐 자신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 때가 75년 초. 그는 이때부터 서울시내의 유명한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다니고, 이름난 점장이·무당 등 안 다닌 곳이 없었다. 병원마다 진단이 틀리고, 무당·점장이마다 그 처방이 달랐다. 갈수록 병세는 극심해지고 고통은 더욱 심해져 왔다. 무당의 말을 좇아 수만원차티 부적을 몸에 붙고 다니기도 하고, 남쪽으로 가야 산다는 어느 점장의 말을 듣고 대구에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전에 가서 불공을 드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전에 가서 얼마간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쓸데없는 일이었다. 「또 속았구나」

하는 열패감 속에 이제 죽는 도리밖에 없구나 하고 새벽마다 한강독을 거닐며 죽기를 생각해 보는 정도까지 이르르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유명하다는 정릉의 어느 한의원원을 찾아가면 때가 74년도 저물어 가는 겨울날이었다. 진맥을 보던 한의사는 “이 병은 도저히 못 고치는 병이요, 도저히 도리가 없소. 충무로에 있는 충헌교회를 가 보시오. 만 교회는 말고 꼭 충헌교회를 가시오. 그러던 혹시 고칠지도 모르겠소”. 허나 그에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다. 거기서도 절망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함께 장사를 하던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다짜고짜로 그를 붙들고 “자네의 병은 예수만이야 낫는 병이니 나 하라는 대로만 하계” 하며 종로서적으로 끌고가 성경·찬송을 사 주며 자기의 체현담과 성경·찬송 보는 법을 가르쳐 주며 교회에 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다. 그는 2년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고통스런 머리가 조금은 맑아지면서 그 친구의 말이 그럴 듯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한의사의 말이며 울랐다. 「꼭 충헌교회로 가시오」 하던.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 보자 하고 충헌교회를 물어 찾아 나온 것이 75년 1월 5일, 75년도 신년 첫주일이였다. 그는 처음나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그처럼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 이어서 계속된 평신도 훈련에도 계속 참석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평신도훈련이 끝나자 큰 걱정이 생겼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틈에 들을 기회가 없었다. 몸의 병은 생각도 안했다. 목사님의 말씀 듣는 것만이 좋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매일 새벽에 나오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다.

그를 이처럼 죽음의 고민으로까지 몰고 갔던 고통은 자신도 모르게 사라졌다. 그는 교회에서 모이는 날은 한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 또한 성경학원에 다니면 늘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곧 성경학원에 입학하였다. 그로서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지만 그저 좋기만 하였다.

그에게는 조용한 혁명이 내부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다시 건강을 찾았고, 다시 그의 사업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다. 그는 너무나도 변하고 있었다. 지나간 날의 생활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목척 없었는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면 눈물만 실컷 흘리고 돌아가곤 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은 것이다. 그의 주위에는 장사로 인해 사귄 수많은 친구·손님들이 많다. 그런데 이들은 전부 그의 좋은 전도대상자가 될 것이다.

그의 전도는 새벽기도를 마친 후부터 시작된다. 새벽기도 후, 남산을 오르며 전도지를 일일이 신문배달하듯 집집마다 넣는다. 증복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남산을 오르내리는 코오스를 변경한다. 아침에 상점에 나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전도지와 함께 「구원은 오직 예수」(충현교회 교인)이라고 새겨져 있는 볼펜을 주며 전도한다. 그의 적극적이고 절정적인 성격은 전도에서조차 잘 나타난다. 전도를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희생도 감수한다.

지방으로 보내는 집꾸러미에 전도지와 불켄을 넣어 보내기도 한다. 성도는 주일을 지키야 한다는 설교말씀을 들은 후부터 꼭 주일에는 된다. 성수주일은 시장에서 무언의 전도가 되기도 한다. 물건사러 오는 어느 아주머니는 “이처럼 비용이 많이 나가는 시장에서 매주일 장사를 안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여자인 내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냐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한다. 이제는 시장 안에 전도의 센터가 되기도 한다. 다른 교회에 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동업자들의 전도는 무척 어렵다. 그러나 그는 5명의 동업자를 인도하여 등록케 하였고 10여명이 출석하고 있다. 동업자에게 전도하기가 하도 어려운 방법을 바꾸었다.

「산업전도교육부」가 신설된 데 생각이 미쳐 우선 각 상점의 종업원들부터 전도하기로 작정한다. 이제 그는 가게에 나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전도하는 일이다.

이제 그를 통하여 그의 온가족·친척들이 교회를 나
온다. 그는 지도자양성부·성경학원·장년부에 열심히
출석하며 공부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을 찾고 있다. 현재 그는 의정부에 사는 어느 맹인(盲人) 전도사 부부를 물질적으로 돕고 있기도 한다.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맹인 부부의 어려운 사정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된 것이다. 이밖에도 알디기를 꺼리는 숨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75년 1학기부터 다니는 성경학원은 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아니, 그것은 우리교회 자체에도 큰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 모른다. 성경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형제들 양이 간호원으로 사수다 아라미아로 가서 근무하는 중 그(조성철 씨)에게 보면 그곳의 사정을



〈새 삶을 찾은 조성행 씨와 그의 부인〉

자세하게 담은 편지가 교회에 반영되어 급기야는 흥해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는 이제 건강을 가졌다. 그는 이제 다시 사업을 가졌다. 그는 이제 다시 생활을 가졌다. 그는 이제 다시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다.

「그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감사한 것뿐」이라는 그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차 있었다.

〈이혈수 간사〉

교회설립 23주년 기념

성경 암송 · 퀴즈 · 고사대회

- ◆ 일시 : 1976년 9월 26일 주일 오후(예정)
- ◆ 장소 : 충현교회
- ◆ 대상 : 충현교회 모든 성도
- ◆ 내용과 범위 : 발립보서

- 1) 1장——영아·유치부
- 2) 1~2장——유년부
- 3) 1~3장——초등부
- 4) 1~4장——중등부 이상

- ◇ 방법 : 압송 · 퀴즈 · 고사

- 1) 영아·유치부——암송대회
- 2) 유년·초등부——암송대회·퀴즈대회
- 3) 중등부 이상——암송대회·퀴즈대회·고사대회

- ◇ 기타

이 행사는 8월 중에 실시 예정이던 성경암송대회가 연기된 행사로서 세부계획은 추후 발표함.

1976년 8월

대한교회주일학교 교육위원회의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
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 적.....
어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 가자는 의도에서, 우리는 전 교인들.....
을 향해 위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 충현」 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최 기 채 목사 지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신 망 애 출 판 사 발행
 국판, 344면, 값1,500원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권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또 생활화되어 있는 부문도 기도분야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우리들의 기도는 너무나 단순하고 표준 없는 습관에서 익혀 온, 다시 말하면 성서적·신학적 체계가 없는 가운데 일상의 친구가 되어버린 듯한 생각이 들게 된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의 이 책은 기도에 관한 제반 문제를 학적 체계 위에서 평이하게 서술해 준 「기도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관한 성경 귀절들을 총망라하여 누구나 이해가 가게 논리적인 전개로 하고 있으며 많은 참고도서에서 발췌하여 인용해 놓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도 분석적인 내용이 잘 정돈되어 있다.

저자 최기채 목사는 「기도와 신비 문제에 관한 연구」라는 저서도 낸 적이 있는 광주 동명교회 당회장이다. 개인 기도처를 무등산에 마련하고 목회자로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으로, 이 방면에 연구를 적지 않게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허무맹랑한 신비주의 기도생활에 대하여 예리하게 다루기도 하였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아주 초보적인 물음에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란 어떤 것인가 하는 궁극적인 문제에까지 취급된 이 책은 기도의 나라 한국에서 출판된 기도의 사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광범한 문제들을 모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너무 소홀하게 중언부언하고 관습적으로 해 왔던 기도생활이 얼마나 무지(無知)스러웠던가 하는 것도 인식케 한다.

*조선근 집사(월간충현 편집위원)

□ 캠페인 / 뜨겁게 봉사하자! □



△ 힘써 일하라! —————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4).

내 구주를 더욱 사랑

More Love to Thee, O Christ
(새 409; 개 471; 합 396)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런 여름에도 우리는 수양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과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란 베드로의 고백을 얼마나 자신있게 할 수 있을까?

이 찬송의 작시자 프렌티스(Elizabeth P. Prentiss) 여사는 어려서부터 문학에 소질이 많아 잡지의 상임 기고자도 지내고 교편생활도 얼마간 하였다. 1845년 4월에는 조지 프렌티스 박사와 결혼,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갔다.

그녀가 결혼한지 11년 후인 1856년 행복한 이 가정에서 뜻하지 아니한 비극이 닥쳤다. 사랑하는 어린 자식들이 악수이나 한듯 한꺼번에 전염병으로 쓰러진 것이다. 여사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부동한 가정이었음에도 이렇게 큰 비극을 당하고 보니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교회 성도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위로하며 가정 일을 보아 주었으나 그래도 위안 받을 길이 없었다. “많은 사람 중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비참이 찾아들다니” 그녀는 북받쳐오르는 슬픔을 억제할 도리가 없어 호느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우리라고 무슨 특권이 있는 것 아니겠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라도 있단 말이오?”하고 든든한 신앙 자세를 보여 주었다. “이런이 오랫동안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치며 서로가 믿어온 바를 우리의 실생활에서 나타내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소. 하나님은 이런 때에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바로 그의 자녀이거든.” 아내보다, 아니 그 몇배나 더 아픈이나 슬픔이 클 남편이 신앙으로 위로받고 승리하려는 태도에 여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이 전주일 설교 때 여러번 되풀이하신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 사랑은 영혼이 눈 멀지 않게 보호한다 —

남편이 심방하러 나가자 프렌티스 여사는 성경을 뒤적이며 어떤 귀절은 조용히 속으로 읽고 어떤 귀절은 큰 소리로 읽으며 밑줄을 적러시키려 애썼다. 그리고는 찬송가를 들어 이런 때에 옛 성도들이 슬픔을 이기기 위하여 부르는 찬송을 뒤적었다. 그가 “내 주를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큰 소리로 몇번 읽으며 그녀의 슬픈 경험이야말로 그 쓸쓸하고 고독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사람이 되어 새 출발한 것과 같은 경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명상하고 기도할 때 벌써 이 찬송의 디딤이 그 마음 속에 잡히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찬송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감동의 찬송이었던 것이다. 그 후 그녀는 60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1700년 전

돈과 인간의 가치

정 은 표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화를 낼 사람도 더러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번이를 위해 스승까지 팔아치운 가룟 유다라면 돈을 우습게 아는 당신이야말로 세상 물질이라곤 바늘끝만큼도 모르는 일간이라고 비웃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유다야말로 장삿속이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유대인의 세계적인 명성을 한껏 높인 인물이다. 3년이나 고락을 함께한 스승을 물건을 팔듯 팔아치운 그 배장하며 스승을 팔 수 있다는 그 참나적인 기회를 적시에 포착한 그 솜씨는 현대의 세계적인 세일즈맨이라고 해도 따르기 힘들 것이다.

어떻게 하여 이처럼 인간이 철저히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입맛이 싹 가시게 되지만, 현재의 우리 주변에도 황금만능주의자라고 하면 필적 뛰면서도 말과는 달리 실생활은 황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돈은 이처럼 현대인을 노예로 삼고 있으며 모든 것이 돈으로 표현되고 있다. 유형의 상품·건물·토지 등은 물론 무형의 상점선용이나 개인의 노동력·시간·수명까지도 모두가 얼마짜리인가 하는 것으로 그 값이 정해진 상품으로 취급된다. 그러기에 수입이 높은 사람일수록 값비싼 고급 상품이 되는 셈이며 그런 상품은 고급을 좋아하는 현대 여성들의 취향에 따라 배우자 선택에 있어 항상 최고의 인기를 차지하기도 한다.

일이 이쯤 되면 돈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이유가 되는 것이며 돈을 위해 서러던 이 생명 기꺼이 바치오리라 하는 황금의 노예가 속출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못된다. 오직 가치 있는 것은 돈이며, 돈은 곧 모든 것을 의미하며 돈이야말로 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편화되어 가는 사회라면 그 사회에서는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하나님의 말씀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당위의 피조물 중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은 인간이며 그 인간의 참된 가치는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되며 인간존재의 이유에 충실한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자기 이익과 물량 위주로 치달고 있는 현대사회는 인간의 가치평가가 크게 왜곡되어 있으며 문명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때에 교회사조도 어떤 인간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지 못한다면 등등불을 찾아 헤매이고 있는 어둠 속의 사람들은 모두 동지박산이 나버릴 것이며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농 어 촌 전 도

오 태 용
 <월간충원 간사, 중등부 교사>

근자에 이르러 한국교회는 「도시교회」 「농촌교회」 하는 말들을 부쩍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그 두 계층 사이에는 두꺼운 벽이 형성되어 간다는 의미가 은연 중 함축되어 있다. 즉 날로 비대해져 가는 도시교회와 갈수록 피폐해 가는 농촌교회의 실상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긍정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러한 현실을 똑바로 인식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비둘이 저만 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도시교회로서 책임의 일단을 절감하여 내용 있는 지체교육을 발휘하고 있는 교회는 한국 강산에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 충청 교회는 한국교회의 불쌍한 현실에 일찍이 해안을 밝혀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를테면 「농어촌 교회 교역자·지도자 초청 훈련」 및 「농어촌 전도대 파송」이 그것이다.

1. 문제의 인식

우리교회는 외부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농어촌 교회를 도와야겠다는 사명교육을 깨쳐 「하기 봉사대」라는 이름으로 농어촌 교회의 어려움이 성경학교를 직접 지도해 주게 되었다. 그런데 예상했던 성과보다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겨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기에 이르렀다. 즉 당해 교회 기존 교사들의 상대적인 무능이 노정되자 농어촌 교회 교사의 권위가 떨어져 애당초 목표했던 교회의 부흥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빚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당기안에 실질적인 교회 부흥을 기해 보자는 의도에서 1972년부터 농어촌 교회 지원에 일대 획기적 전환을 가져왔다.

그 첫째는 하기학교 지도가 목표인 「농어촌 봉사대」를 「농어촌 전도대」로 바꾼 일이다. 대개 농어촌 교회는 이웃에 전도하기를 몇척이 하고 그러다 보니 전도의식도, 전도 훈련도 못하였다. 그래서 「농어촌 전도대」로 하여금 전도 집회 및 축회 전도를 실시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보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였다. 아무리 결신자를 많이 내어 모처럼 부흥의 길을 열어 놓았다 할지라도 현지 교회가 새신자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겠기에 무엇보다 시급한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농어촌 교회 교역자, 제직, 주교 교사들을 초청하여 「농어촌 교회 지도자 초청 훈련」을 실시하게 된 것이 그 둘째이다. 이것을 3회 실시한 결과 지도자 훈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1975년부터는 「교역자 초청 훈련」(6월)과 「평신도 지도자 초청 훈련」(7월)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 다섯번째로 「평신도 지도자 초청 훈련」을 실시하였다.

2. 문제의 처리

구체적으로 농어촌 전도와 관련된 이상의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은 대전 이북을 원칙으로 충청남북도와 경기도 강원도에 한한다. 그 이유는 과중한 교통비 부담도 부담이려니와 그보다도 이 막중한 사명을 위해 영남지방은 대구·부산의 큰 교회가, 호남지방은 전주·광주의 큰 교회가 나누어 짐을 지자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작년에는 충남북과 경기도 일부, 금년에는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에서 초청되어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알아 본다.

모든 행정 처리는 노회에서 하기 때문에 각 노회 노회장 앞으로 공문을 띄운다. 그러면 노회장이 자기 재량으로 소정의 교회를 선정 추천하는데 대개 80교회씩 하게 된다(이 중 실제 훈련 참가 교회는 이보다 적다) 이렇게 초청된 교회에서 6월에는 교역자들, 7월에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훈련을 받게 되는데 본 교회는 이들 가운데서 단기적 지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회(예컨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세를 보아서 70~100여명의 교일이나 교회당 건물이 있는 곳)를 9군데 정도 선정한다. 농어촌 전도 대상 교회가 선정되면 교회는 그곳에 파송할 전도대원을 모집, 훈련시키는 데 대개 각 대 6명씩(지도 교역자, 전도대장, 대원 4명)으로 편성해서 파송한다.

3. 결과와 전망

대상 교회의 제반 조건이 충분히 검토되었고 또 파송 전도대가 훈련된 정에이기 때문에 하기 농어촌 전도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안으로는 우선 취제한 농어촌 교회에 전도 의욕을 고취시키고 동시 현지 지도자들에게 현장학습을 시키고 밖으로는 해마다 전체적으로 6,7백명씩 결신자를 얻고 있다. 이상은 현지 교회에 거의 후유증을 남기는 일 없이 우리교회가 농어촌 전도를 나가서 얻는 성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지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서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점이다. 결신자 중 그 1할만 입교시켜도 큰 성과이다. 새신자를 얼마만큼 육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그 교회의 영적 능력에 달려 있다. 목회 지도자의 자질도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그 교회가 체력적 은혜가 증성하느냐에 좌우된다. 한마디로 그 교회가 살아 있느냐, 또는 살려는 의지가 있느냐가 관건이라 보아진다. 지면 형편상 농어촌 전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책은 「월간충원」 1975년 7월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정통주의를 표방하여 근본주의에 대한

—신복음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Ⅰ)—

- ☐ “1930년대에 이르러 자유주의자들은 신학교와 선교부를 비롯하여 대부
☐ 분의 문서기관을 장악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와 반대로 근본주의는 자유
☐ 주의자들로부터 오히려 정죄를 받아 신학교와 교회 혹은 기타 기관들로부터
☐ 터 축출당하고 말았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근본주의자들 가운데는.....”
 (본문 중에서)

김 차 생 집사

<고등부 교사>



◇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문자 그대로 혼란한 시대이다. 특히 서구신학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 한국교회는 신학적 혼란으로 지식층의 교인들은 자유주의신학으로 빠져들고 무식한 교인들은 극단의 오순절주의적 신비주의 신앙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 신학자나 목회자들마저도 분명한 태도로 신학적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최근 몇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신복음주의(New-Evangelicalism)라는 용어가 말과 글로써 소개되어 한 때 논쟁도 있었으며 심지어 보수주의 신학자나 목회자들까지도 뚜렷하게 밝히기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어디까지나 평신도의 입장에서 신복음주의 신학의 유래와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소개하여 다만 상식적인 것만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신복음주의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 교회사에 대해 약간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00년 전후만 해도 미국의 신교 교파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앙의 근본교리를 믿고 교수하는 보수적인 교회였다. 그러나 그 때 몇몇 교수에게만 감명되었던 자유주의적 신학사상이 점차로 여러 신학교에 퍼지고 신학교에서 교회로 확대되어 마침내 자유주의는 모든 면에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갔다.

1923년 미국 오번신학교에서 1,200명 이상되는 미국 복장로교 목사들이 오번 선언(Auburn Affirmation)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의 내용은 ① 성경의 무오성 ②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③ 그리스도의 이적과 신성 ④ 십자가상의 대속적 속죄사역 ⑤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으심과 육체적 부활 등 기독교의 오랜 기본적 교리를 완전히 부인했다.

이와같이 신앙의 근본교리를 반대한 사람들은 자유주의자 혹은 현대주의자들로 알려지게 되었고, 반대로 이 오랜 교리를 방어진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들로 알려졌다.

1930년대에 이르러 자유주의자들은 신학교와 선교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문서기관을 장악하는 데에 성공

했다. 이와 반대로 근본주의는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오히려 정죄를 받아 신학교와 교회 혹은 기타 기관들로부터 축출당하고 말았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근본주의자들이 가운데는 우리는 왜 이와 같이 패배를 하게 되었는가를 스스로 자문자답했다. 우리는 너무 엄격하여 사람이 없었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은 사회 제반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지만 우리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와 같은 좌절의 무우드(mood)를 따라 정통주의를 새로이 시작한다는 뜻에서 근본주의에 대항하여 나온 것이 신복음주의이다.

이 용어가 신학계에 처음 알려진 것은 1948년 미국 홀리신학교의 개학식에서 초대교장 오웬카 박사가 강연중 사용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대표적 교육기관으로서 1947년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된 홀리신학교, 휘튼대학이며 문서기관으로서 이 사상을 대변하는 「오늘의 기독교—Christianity Today」지이다. 단체로서는 오순절교파를 포함하여 30개 교파가 가입된 복음주의연합회(N.A.E./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이다. 대표적 인물로는 홀리신학교 초대교장 오웬카 박사, 2대 교장인 에드워드 존카넬, 교수 중 칼 헨리, 에베렛 해리슨, 버나드 램 등으로 신복음주의를 유력하게 주장하였다. 후에 칼 헨리는 「크리스찬 투데이」지를 간행하여 신복음주의 확보에 크게 활동하였으며 지금 서울에서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경영하고 있다(우리 교단인 합동측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일체 가담하지 않음).

1957년 「크리스찬 투데이」지가 발간되었을 때 칼 헨리는 언급하기를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옛날에 토론했던 논제에 대해서 이상 더 고려하기를 싶어하고 기독교 일치(一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표명하는 새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유주의에 있지 않고 배교에서 떠난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을 비판하고 칼 바르트, 브루너, 본 헤퍼 신학의 예리한 통찰력을 칭찬하는 논문을 기고하게 하였고 그는 특히 빌리 그레합 목사의 연합적 복음화 정책을 반대하는 자들을 방어하는 데 제일인자가 되었다.

그런데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이들의 신학사상은 작자에 따라 약간 상이한 점이 있으나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신복음주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자기들의 입장에 유리한 조건을 먼저 택하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음호에 계속>

구역공과

◇9월 공과◇

제 4 장 주기도의 세번째 간구

성경/마 6:10

찬송/602(합 291)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일의 내용」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두번째는 「일의 방법」 즉 하늘에서와 같은 방법이다.

1. 하나님의 뜻이란?

두가지 종류의 뜻이 있다. ①「하나님의 비밀의 뜻」 즉 그의 섭리 ②「하나님의 계시된 뜻」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비밀의 뜻을 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그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라”(do)는 교훈과 “하지 말라”(do not)는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며 그 대표적 예가 십계명이다.

2.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행하면 된다.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골 3:3)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영적인 예배를 원하신다.

(2)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한다(행 5:29). 마치 사도들과 베냐민과 아벳네고스가 느부갓네살의 명령(금신상에게 절하라)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제 2 계명)을 우선적으로 행한 것처럼(단 3:18) 말이다.

(3)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듯 해야 한다.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준행하는가? 다음 여러가지가 있다.

① 천사는 「명령받은 것」만 행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멋대로 하려고 든다(사 1:12-13). ②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남김 없이 행한다(시 103:21; 히 1:14). ③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행한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렇지 않았다(대하 25:2). ④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불평 없이」 자발적으로 행한다(대상 28:9). 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으로」 행한다(롬 12:11). ⑥ 천사는 모든 봉사에서 「최고의 것」을 바친다(민 18:29). ⑦ 천사는 명령을 받을 때 주저하지 않고 「즉시」 행한다(단 9:21). ⑧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항상」(밤낮) 시행한다(제 7:15).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천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듯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제 5 장 주기도의 네번째 간구

성경/마 6:11

찬송/353(합 348)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간구는 우리에게 기도의 순서를 암시해 준다. 즉 나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번째로 이 간구는 우리가 「날마다의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 특히 이 기도는 아들의 기도와 많은 유사점을 가진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잠 30:8). 모든 은혜와 축복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따라서 정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시 136:25)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음 두가지의 기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의 차이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죄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거룩케 하시는 은사 등 구원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우리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구해야 하나, 「세상의 것을 구할 때는 우리의 기도에 제약이 있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선하게 보시는 한에서 이루어 달라는 조건적 단서가 붙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질노하시므로 응답하지기 때문이다(시 78:28-31).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기도는 천국 가는 우리의 여행에 필요한 영적 목적을 가지고 드려야 한다(예=하나님의 기도, 삼상 1:11). 결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는 안된다(약 4:3).

그러면 여기서 “양식”(bread)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정직한 노력으로 얻은 양식을 말한다. 그러나 성경엔 두가지의 부정한(허락하지 않는) 양식이 있다. 첫째는 “게을리 얻은 양식”(잠 31:27) 즉 다른 사람의 노력하고 희생하여 얻은 양식과 두번째는 “폭력으로 빼앗은 양식” 즉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도적질해서 빼앗은 양식(참고, 제 8 계명)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양식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즉 의·식·주에 관계되는 일체의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그 모두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세속적인 것을 구할 때는 언제나 “주여, 그것을 당신께서 기쁘게 보신다면”하고 단서를 붙임으로써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구역 소식

축하합니다(7월중 결혼)

- 김영철, 주미아 / 주전과제, 이명자 집사 딸—9일 타워호텔

위로드립니다(7월중 별세)

- 서원국 / 명륜구역 김정자의 부군—12일
- 김정식 / 허경숙 집사 시모—15일
- 한용연 / 한 복 집사 부친—20일

7월 해외이주 가족

- 김성주 집사 / 30일, 미국

구역 인사이동 (7월 12일부)

- 명, 마포구역 권철 이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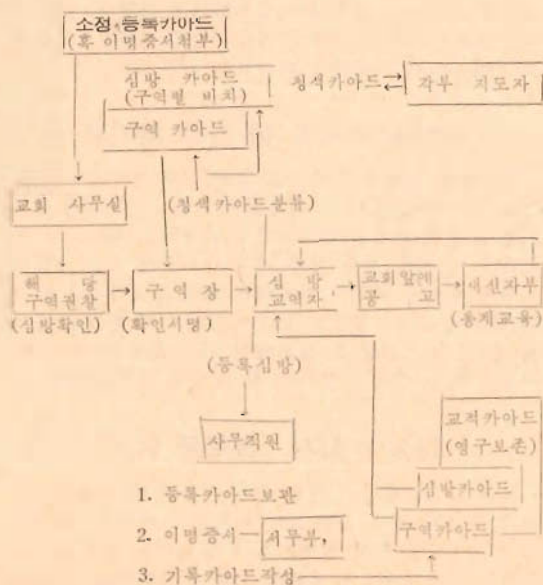
《알림》

- 9월부터 다시 구역예배를 드립니다. 9월 구역 공과는 「월간 증현」 8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 *

- 이연호 선교사가 드디어 지난 8월 6일 오후 7시 비행기(KAL)로 선교지인 홍콩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절차 및 카드로 도표



□ 구역장 노트⑦ □

교회등록절차와 카드 관리요령

백 성 룡 목사
(구역권찰회장)

1. 우리교회 등록은 소경양식의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등록카드의 주소에 따라 해당 구역에 보내어 권찰들의 심방 확인 후에 교회 앞에 공고함으로써 등록이 끝난다.

2. 등록할 때 혹 이명서를 첨부하였으면 그 내용을 교역부에 기록한 후 이명서는 서무부에 보관한다.

3. 등록이 끝나는 대로 등록카드는 새신자부를 경유하여 지역담당 교역자가 등록심방을 하여 미비된 사항은 보완하여 기록한다.

4. 등록심방 후 일련번호(고유번호)를 부여하여 ① 교적카드 ② 심방카드 ③ 구역카드 등을 작성하고 심방할 수 없는 사람은(대심방 때는 가급적 찾아보도록 해야 한다) 심방카드와 구역카드에 청색테이프를 붙여서(이하 청색카드라 함) 심방할 수 있는 사람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심방카드는 일괄하여 구역별로 비치하고 구역카드는 구역장에게 보낸다.

5. 위에서 말한 심방할 수 없는 사람이란 우리교회 교인이 아닌 가정의 학생이나 혹은 독신자, 미혼자 그 밖에 직업을 따라 유동성이 많은 사람이며 비록 심방은 못하나 생활근거와 거주(본인이나 가족들의 소유 주택 등)가 확실한 사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부부가 직장생활로 집을 비워 심방을 못하는 경우이다.

6. 청색카드는 연평과 신분에 따라 가급적 주일학교 각부나 성가대 등 기타 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부 지도교역자에게(한 카드가 여러 부처에 회람된 경우 순위를 정하여 카드 소재를 분명히 할 것) 위탁하고 심방카드에 서명하게 할 것이며 그 밖의 잔여 카드는 구역에서 통제상으로만 파악한다.

7. 교적카드는 어떤 경우라도 번조하거나 삭제할 수 없고 계속 추가 기재하여 영구보존한다.

8. 심방카드는 교적카드보다 간결하게, 구역카드는 심방카드보다 약식으로 작성할 것이나 기재된 사항은 그 사항별로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9. 제적은 별세·전출·실종 등 그 사유가 명백한 것에 대하여 수시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분명하지 못한 것은 교회 불출석 1년 후에 대심방을 제기로 연 2차 일제히 정리하여 제적자 교적카드는 별도로 보관하고 제등록시에는 복적시킨다. 단 청색카드인 경우는 구역장과 권찰의탁부서의 지도교역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10. 각종카드는 본인이 조퇴를 요청할 경우와 공적으로 공략의 필요를 인정할 경우 외에는 공개 열람을 할 수 없다.

농어촌전도대 내일 출발

—모두 9개 교회로 54명의 대원이—



《축호전도에 나서는 전도대원들》

오는 13일 돌아오게 될 각 전도대의 파송 지역과 교회는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 정선군, 정선제일교회 ② 강원도 홍천군, 양덕원교회 ③ 강원도 횡성군, 횡성제일교회 ④ 강원도 정선군, 북평제일교회 ⑤ 강원도 양구군, 도사리교회 ⑥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제일교회 ⑦ 경기도 여주군, 금현교회 ⑧ 경기도 여주군, 지내교회 ⑨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교회.

농어촌교회의 부흥과 농어촌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파송되는 농어촌전도대가 드디어 내일(9일) 각각의 일지로 9개 전도대로 편성되어 출발한다. 공식적으로 법교회적인 전도대를 구성·훈련하여 조직적으로 파송하기는 올해로 다섯번째가 되는데 이러한 농어촌전도의 다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 농어촌교회 교역자·평신도 지도자 초청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여 왔다.

올해는 모두 54명의 대원이 파송되는데 「망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마 28:19-20는 주께 아래 임지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걸신시키고, 해당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난 7월 22~23일 양일간 전도대원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과거의 전도활동 결과를 토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가운데 내실을 기하고 있다.

홍종만·이연호

두 선교사 파송예배

—이연호 선교사는 목사안수 받아—

지난 7월 14일(수) 본당에서 총회 선교부 주관으로 홍종만·이연호 두 선교사에 대한 파송예배가 있었다. 이날 파송예배에는 총회장 장성원 목사(시내 서대문교회 시무)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1-34는 설교의 말씀을 하였고, 총회 선교부 서기 한명수 목사가 기도를 하였다.

또한 총신대 학생인 김희보 목사는 「무엇보다도 마음에 낙심될 때 더욱 주의하라」는 내용의 원편의 말이 있었다. 또 7월 19일(월)에는 우리교회에서 임시 노회가 열렸고, 이연호 전도사에 대한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였다.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낯설고 물결은 땅으로 말씀을 들고 나선 홍종만·이연호 두 선교사와 이미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기도와 물질로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다. 특히 사정에 의해 고국에 남겨두고 떠나는 일부 가족식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성껏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건축위원회 기술부 두기로

—기술적인 자문과 검토 위해—

우리들의 오랜 소망인 새로운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여러가지로 힘쓰며 차근차근 그 준비작업을 진행시켜 오고 있는 건축위원회(위원장 김기정 장로)에서는 멀리 알아 착공하게 될 성전건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축위원회 내에 기술부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그 구성원은 7명 정도로 하여 평교인까지 포함하는 법교회적인 것으로 하되 건축기술 부문에 조예가 깊고 유능한 사람으로 추천하여 임명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성전건축에 있어 실제적인 기술자문과 기술검토를 주로 맡게 될 이 기술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교회내 바닥의 겹 모두 떼기로

무분별한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쟁다가 버린 교회내 바닥의 겹을 모두 제거하기 위하여 성가부는 오는 14일 오후 한나절을 봉사하기로 하였다. 겹 공해라고 할 만큼 쟁된 겹을 아무데나 버려 보기 흉하게 얼룩진 바닥을 깨끗이 닦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함으로 보다 깨끗한 교회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온 성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 이같은 일을 하기로 했다고 한 대원은 말하고 있다.

김성주 집사 공로패 받아

우리교회 설립당시 처음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인 김성주 집사가 지난 7월 30일 미국으로 이민차 떠나기에 앞서, 7월 28일 교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김 집사는 우리교회에 출석하며 21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 대원으로 제직으로 교회에 충성을 다해왔다.

올 여름행사 평가지도기로

—내년도 여름행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 16개의 올 여름행사 가운데서 지난 7일로서 12개 행사가 이미 끝나고 이제는 중반에 접어들었다. 이제까지 실시된 모든 행사가 계획과 크게 차질이 없이 순조로이 진행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행사도 큰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끝을 맺을 수 있도록 온 성도의 계속적인 기도와 협력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는 올 여름행사의 결과를 보다 면밀하게 종합·분석하여 내년도 여름행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이제까지의 여름행사가 각부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실시·사후처리를 함으로써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서로 연관성 있고 균형 있는 여름행사의 방향과는 거리감이 있고 종합적인 성과 측정을 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나아가 각부의 여름행사를 평가지도함으로써 보다 분명한 방향성정을 해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따라서 모든 여름행사가 끝나는 대로 오는 8월 말경에 일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각부의 여름행사에 대한 서면보고를 반응과 아울러 회계장부 및 기타 기록문서를 참고하게 되리라고 하는데, 각부에서는 주일학교 전체의 발전을 위한다는 보다 긴 안목에서 이와같은 계획에 적극 협력하여 줄 것을 교육위원회는 부탁하고 있다.

교육위원장 후임에 정상우 목사

—산업전도교육부는 백성룡 목사가 겸직—

그간 교육위원장으로 또 신설 「산업전도교육부」 지도교역자로 수고하던 홍중만 목사가 선교지 홍콩으로 불원한 출발하게 됨에 따라, 당회는 지난 7월 12일 교육위원장 후임에는 정상우 목사를, 산업전도교육부 지도교역자 후임으로는 백성룡 목사를 각각 임명하였다.

백목사는 현재 구역권찰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정목사는 구역담당 및 성가부 지도의 일을 맡고 있다.

산업전도회 세미나 열어

—지난 2일 첫 월례회 때—

산업사회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지난 7월 9일 발족된 산업전도회(회장 최석주 장로) 첫 월례회가 지난 2일 저녁 유년부실에서 열렸다. 모두 28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회의에 앞서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성남제일교회 박용규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성경에 나타난 사업인」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들었다. 아직도 산업전도회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이 모이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관계자는 염려하고 있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성도는 물론 직장인으로서 산업사회의 복음화에 뜻을 둔 사람들은 모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산업전도회는

어떤 것이며, 무엇을 하는가?

◇「산업전도회」는—총회교회 남녀 성도로서 ① 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거나 ②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나 ③ 직장인으로서 산업사회의 복음화에 뜻을 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산업전도회」는 앞으로—산업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하려 합니다.

① 각종 대화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교도모 ② 공동과제·목표 등을 위한 기도회 ③ 전문가나 경험자를 통한 교육·훈련 ④ 직업청소년을 위한 「산업전도교육부」 지원 ⑤ 산업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전도요원 양성 ⑥ 직장복음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⑦ 이상적인 기업운영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개발.

토막소식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예정대로 지난 7월 21일 해외여행길에 올랐다.

*구역권찰회는 9월부터 다시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공과는 「월간충현」에 열재된다.

*인도네시아 한국선교관 개관식이 오는 8월 중순경 있을 예정이다.

*제일성가대는 8월 2일 더위에 수고하는 교역자·장로들에게 과일을 대접했다.

*남전도회는 오늘(8일)오후 본당에서 특강을 갖는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올 여름행사결과보고에 대한 준비에 각부가 유의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성경학원 지도자 양성부 제9기생 52명(남 18명, 여 34명)에 대한 수료식이 8월 15일 있다.

*교회 도서관 남자 직원으로 이대길씨가 8월 1일 채용되었다.

*초등부 최재복 교사가 지난 여름성경학교 때 거리관계로 출석이 어려웠던 어린이들에게 점심·간식 등을 제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

*중등부는 8월 15일 남산으로 노방전도를 나가며, 8월 29일에는 성경암송 대회를 연다.

*고등부는 7월 17일 총회신학대학에서 열렸던 「전국 중·고등학생 성가경연대회」에서 중창에 1등(추정회·문영란·홍희숙)을 하였다.

*고등부는 8월 29일 고등부실에서 조별대항 성가경연대회를 열 예정이다.

*대학부 정기총회가 8월 1일 열려 회장에 이병재, 부회장에 윤보섭이 각각 선출되었다.

*대학부는 8월 2일~6일에는 제자훈련을 8월 9일~10일에는 대학부 성가대 수양회로 각각 열 예정이다.

*청년부는 8월 8일에는 사당동에 있는 남성중앙교회 주변으로 일제전도를 나가며, 8월 29~31일에는 청년부실에서 「새 생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산업전도교육부 부지도로 7월 12일 김수성 전도사(총신 신학원 1년)가 임명되었다.

○... 7월 16일

기 자 석

아침부터 비나리다. 비오는 산속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기분 좋게 아침, 나선다. 오전 11시 30분착. 입석. 태화 캠프장. 썩 마음에 드는 곳이다. 어제 저녁부터 열린 청년부 하기수양회, 반나절 지각이다.

7월 17일

숲속 나뭇잎을 때리는 빗소리는 역시 좋았다. 딱딱한 마루바닥에 앉아 영 목사타입(?)이 안나는 석태운 목사님으로부터 참 목자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복음의 진수(眞髓)들을 끈질긴 강의의 통하여 끈질긴 인내심을 발휘해 가며 듣는다. 새벽강의, 점심강의, 저녁강의. 아! 나도 모르게 슬쩍이 열리는 마음에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었다. 믿는다는 것은 확실한 앞에서 출발한다. 그리스도를 만난 시간들이었다.

○...청년부의 하기수양회를 시작으로 연이어 진행된 각부서의 여름행사도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특히나 금년 여름에는 제일성가대와 노년부가 처음으로 수양회를 열게 되어 더욱 이채를 띄고 있다.

「집중적인 신앙훈련」을 목적으로 열리는 각부서의 여름행사 중 계획 및 준비과정에서 애를 먹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장소문제이다. 계획상에 나타난 시간일정을 보고 또는 진행의 내용과 방법 등을 보고 구태여 교회 밖으로 장소를 정해 큰 비용을 들여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냐는 일부의 비판을 들을 수 있다. 그런 내용과 진행이라면 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비판은 꽤 타당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허나 새끼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절과 인원과 돈과 시간이 쏟아지는가를 생각해 보라.

○...한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올바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비용과 시간의 소모가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라. 이는 수양회의 목적이 「신앙의 집중훈련」을 통한 자개인 마음 중심의 「조용한 변혁」인 만큼, 더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으로도 교회나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을 찾아 나서는 큰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단절인 것이다. 즉 세상과의 단절, 복잡한 서울과의 단절, 어제와의 단절, 친구와의 단절, 부모 형제와의 단절. 단절이 가능한 것이다. 이 모든 세상적인 것과의 단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제일 첫째 조건일 것이다.

○...이런 면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는 더욱 한적한 곳을 찾아 나섰으면 싶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꼬마들도, 노년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모두가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을 찾아 나서도록 계획해 보자. 예수님도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던가 말이다.

○...많은 사람이 큰 만족과 기쁨을 얻은 금년 청년부 수양회를 그 시간과 강사, 그 참석자, 그 조직, 그 진행방법을 그대로 장소만 옮겨 우리교회 청년부실에서 실시했다면..... 글썽, 모르긴 몰라도 참석자 중에 많은 사람이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그 시간에, 마음들은 회사에서 일하고, 친구와 만나고, 내일 일을 생각하고, 또는 텔레비전 연속극 앞에 앉아 있고 했을 것이다.

○...자! 내년도 하기수양회.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등은 모두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을 찾아 나서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성령을 받아, 영아부에서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평신도에서 장로·목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똘똘뭉쳐, 하나님의 사상을 전파하고, 확증하는 우리교회가 되어보자.

○...청년부 수양회를 마치고 나서는 회원들의 얼굴에 넘치는 기쁨과 만족, 어찌 보면 미쳤다고 할지도 모를 그 히죽히죽하는 미소를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요, 둘째는 목사님의 훌륭하신 강의요, 셋째는 모든 것을 단절한 회원들의 간절한 심정이요, 넷째는 입석에 있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태화수양관 때문이라. (형수)

편집하고 나서

*...여름도 막바지로 접어들다. 마치 더위와 경쟁이라도 하듯이 우리의 열심은 더해진다. 달아오른 태양, 해갈 한번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지만 우리에게 아랑곳 없는 일이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각부서의 여름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말고 이 8월의 무성함처럼 영혼이 성숙해지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총회의 모든 식구가 「예수 믿는 맛」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도록 말이다.

*...새 시대에 새로운 가치관이 아니라 새 시대에 예전과 같은 구태의연한 가치관(곧 성경에 나타난,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의 재확인(정확히는 재확인)을 위한 비전제로 이번 호에는 「성도의 헌금」을 주제로 정관일 목사의 글을 실는다. 우리의 것 1/10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 9/10을 쓴다는 명쾌한 지적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고전 6:19,20)라는 말씀이 그저 외우기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고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 말씀임을 심각하게 해 준다. 모두에게 일독을 권한다.

▶표지 설명◀

해의선교회는 낭만적인 일이나, 마치 대안의 불을 바라보는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밀접하게 주위에서 생활하시던 홍준만·이연호 목사가 홍릉과 홍해지역의 선교사로 결정되어 지난 7월 14일 저녁 파송예배를 드렸다.

이제 우리는 두 선교사와 이전보다 더욱 주 안에서 묶여질 것을 다짐하며 두 분의 모습을 담았다.

월간 「총현」 8월호 통권제32호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위 영 환

주 간/신 성 중

편집국장/조 신 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6년 8월 8일 발행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 우리교회는 이제 4명의 해외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 서만수 목사·유병세 집사에 이어, 이연호 목사가 흥해지역으로, 홍종만 목사가 홍릉으로 부름받아 가게 되었다. 교회는 지난 7월 21일(수) 홍종만·이연호 목사의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렸다. 100명의 해외선교사 파송을 기도드리며……



◇ 직장의 복음화, 산업사회의 복음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우리교회는 지난 7월 6일 유년부실에서 「산업전도회」를 발족했다. 이는 앞으로 「산업전도교육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것이다. 사진은 「산업전도회」 창립총회 광경 (왼내는 초대회장 최 석 주 장로)



◇ 농어촌교회 평신도지도자 초청훈련이 7월 22~26일 우리교회에서 열렸다.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75교회 75명이 참가했다. 금년에도 교역자훈련→평신도지도자훈련→전도대파송 등의 유기적인 연결이 이뤄져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 지난 7월 4일 유치부실에서는 우리교회 12번째 주일학교를 개교하는 예배가 드려졌다. 직업청소년들을 위한 「산업전도교육부」가 새로 출범하였다 (왼내는 초대 부장 황기성 장로).



◇ 1976년도 각부서의 「여름행사」가 지난 7월 15일 저녁 청년부 수양회로 서서히 막을 올렸다. 단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되어 단비로 흠뻑 적신 영혼으로 기쁨을 가득 안고 온 청년부수양회의 한 장면.



실로암
못가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장 7절)